

TDB경기동향조사(전국) — 2018년2월 조사 —

폭설 및 인력부족이 기업활동의 정체원인

~ 국내경기는 1년 1개월 만에 악화, 확대기조 일변 ~

(조사대상 2만 3,173사, 유효회답 1만 70사, 회답률 43.5%,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1. 2018년2월의 경기DI는 0.8포인트 감소한 50.3이 되었다. 50선은 유지하였으나 2017년1월 이래 1년1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확대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폭설 및 인력 부족의 심각화, 코스트 부담증가의 압력으로 정체되었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수출 및 설비증가 등 기업부문의 견인으로 확대가 전망되는 한편, 금융시장의 동향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2. 10개 업계 중, 『기타』를 제외한 9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호쿠리쿠 등의 동해지역과 북일본 지역을 강타한 폭설이 물류, 공장진척의 정체원인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및 연료비 등의 코스트 부담도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인력부족의 심각화로 인한 공급계약 등의 악영향이 드러났다.
3. 『홋카이도』 『호쿠리쿠』 등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악화, 『큐슈』가 개선되었다. 북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쳤다. 북구, 부흥공사는 계속되었으나 신설주택의 착공수나 공공공사의 감소는 특히 지방권 건설업의 악화요인이 되었다. 규모별로는, 1년1개월만에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이 나란히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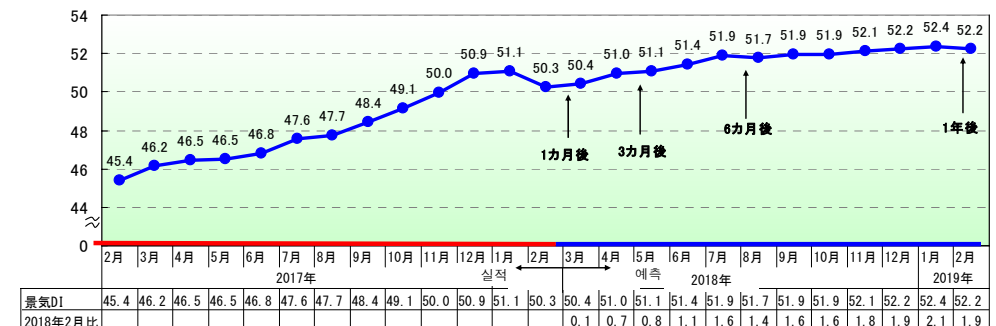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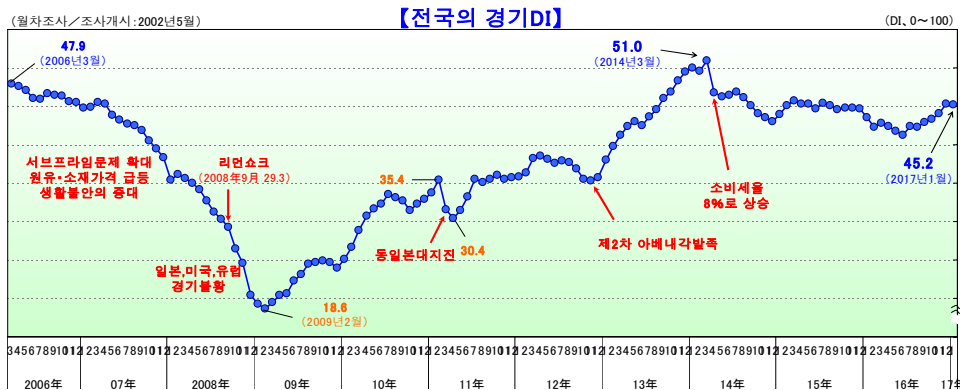
< 2018년2월의 동향 : 확대기조로 일변 >

2018년2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8포인트 감소한 50.3이 되었다. 50선은 유지하였으나 2017년1월 이래 1년1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2월의 국내경기는 일부지역을 강타한 맹렬한 한파와 폭설이 기업활동, 소비활동의 정체를 불러 일으켰으며,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인력부족의 심각화에 동반하는 수주 지연 및 공급계약이 일부 기업에서 드러난 한편, 인건비나 연료가격, 식품가격의 인상도 겹치는 등 코스트부담이 기업경영을 압박하였다. 또한 엔고(円高)현상의 진행 및 추가하락으로 대변되는 외환, 주식시장의 변동이 기업거래에 악영향을 끼쳤다. 국내경기는 확대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설 및 인력부족의 심각화, 코스트부담의 증가 압력으로 인하여 주춤하였다.

< 향후의 전망 : 확대기조로 추이 >

향후의 전망은, 세계경제의 회복을 기점으로 수출증가가 계속되는 가운데, 호조를 띤 기업수익을 배경으로 설비투자도 견조로 추이할 것으로 보여진다. 개인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로 예상되어지나 경기의 견인역할을 할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올림픽관련 및 소비세인상전의 돌발적인 수요도 경기를 상승시킬 것이다. 한편으로, 미연방준비제도가사회(FRB)에 의한 이익상승이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동향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과부족DI(정사원)가 과거 최고를 갱신하는 등 인력부족의 심각화에 동반하는 인건비 증가 및 사업활동의 정체는 우려되는 요인이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수출 및 설비투자 등 기업부문의 견인으로 확대가 전망되는 한편, 금융시장의 동향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